

서정인 소설의 ‘희생양’과 상대주의적 세계관

박 회 현*

요 약

서정인의 소설에는 ‘희생양소’, ‘속죄양소’가 언급, 서술된다. 서정인은 ‘희생양의 무고함과 군중의 만장일치적 폭력을 계시에 의해 보여준 인류사적 사건으로 ‘예수(Jesus Christ)’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희생양의 역사라 주장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 그는 모든 다름의 이면에 인간의 배타주의적 태도가 내재해 있음을 들고 있다. 서정인은 자신의 옳음에 대한 지나친 신념이 타인을 적 또는 악으로 규정하게 만들고, 이 배타적 태도가 수많은 희생양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 1452-1498)를 『용병대장』과 『말뚝』에 등장시켜 종교적 희생양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희생양 메커니즘의 본질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이다. 서정인은 사보나롤라를 통해 종교가 흥성하던 시대에도 희생양은 만들어졌으며 희생양 메커니즘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서정인은 희생양이 “분풀이” 대상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임의로 지정된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어떻게든 화풀이 대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서정인은 한국 사회가 희생양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한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진단한다. 그는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을 들어 특정인들의 정치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이 이용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음을 개탄하고 있다. 부패한 정권이 만들어낸 희생양에게는 죄가 없을뿐더러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미약하다. 부패한 정권은 이를 잘 알고 있었으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며 자신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체제 외부를 향하도록 적극 유도했다.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다. 서정인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이상적 사회로 보았으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맞물려 있었다. 서정인의 다양성에 대한 추구는 '상대주의'로 이어지며 그의 문학 세계의 본류를 이루고 있다.

주제어: 서정인, 희생양, 희생양 메커니즘, 배타주의, 상대주의, 다양성, 민주주의

목
차

1. 서론
2. '희생양'에 내재한 인간의 배타주의
3. '희생양 메커니즘'에 저항하는 상대주의적 세계관
4. '희생양' 없는 사회를 위하여

1. 서론

서정인은 1962년 『후송』으로 등단하여 『철쭉제』(1983)를 기점으로 작품 세계가 크게 변화하였다.¹⁾ 이에 대부분의 논의들은 그의

1) 서정인 소설의 변화를 『달궁』으로 보는 논의들이 있지만 사실상 본격적인 형식 변화는 『철쭉제』부터 시작된다. 김경수는 『철쭉제』가 “1985년 9월부터 집중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문제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달궁』의 언어, 그 언어의 땀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일반적인 독서관습과 배치되는 구어의 모습과 그 논리다. 바야흐로 한글 문어체를 확립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현재의 우리로서 어떤 정격(正格)의 문어체를 상정하는 것이 우습기는 하지만, 바로 같은 이유 때문에 이로부터 시작된 구어체의 속성에 대한 탐구 또한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김경수, 『〈달궁〉의 언어에 이르는 길』, 『작가세계』 제21호, 작가세계.

소설 세계를 초기와 후기로 양분하고 시기별 작품의 특성들을 개별 작품들을 통해 밝혀내는 작업들을 진행해왔다. 이 때 연구의 초점은 주로 독특한 언어 사용 방법(문체)²⁾과 서사전략들³⁾에 맞춰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작가의 문학 세계 안에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난다 하여도 그것이 한 사람의 창작물인 이상 공통된 현실 인식과 세계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서정인 소설 세계 전반을 조망하고 있는 연구와 논문은 현재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정인 소설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고는 서정인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희생양'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정인은 '희생양'을 소설에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용병대장』에 이르러서는 '사보나롤라'를 희생양의 전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서정인에게 '희생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인물 유형으로 다수(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피해자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작가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등장인물은 작가가 지닌 현실 인식, 세계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세계를 이해하는 시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4.5. 31면)"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김주현도 "『철쭉제』를 기점으로 서정인은 판소리 사설체를 끌어옴으로써 살아있는 그대로의 입말과 구별되는, 새롭게 창조한 판소리 사설체를 통해 '특이한 소설의 문체로서 입말'을 선보인다(김주현, 「서정인 문체의 양면성」, 『어문론집』 제32집, 중앙어문학회, 2006.8. 273면)"고 언급하였다. 이에 서정인 소설의 형식 변화는 『철쭉제』부터 시작되며, 『달궁』은 형식실험의 정점에 위치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2) 주영중, 「모호한 언어와 불확실성의 세계-서정인의 『미로』에 나타난 언어관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42집, 중앙어문학회, 2009.11. 437-459면.
- 3) 김재영, 「서정인 소설 『달궁』의 서술특성과 '현실성」, 『상허학보』 제20집, 상허학회, 2007.
오양진, 「부조리의 현실과 수수께끼의 서사-서정인의 『뒷개』에 나타난 서술과 독자에 대하여」, 『국제어문』 제56집, 국제어문학회, 2012.12. 293-320면.

서정인은 한국 전쟁과 군부독재, 민주화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며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들을 목도하고 이를 경계하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희생양’에 대한 고뇌와 ‘희생양 메커니즘’에 담긴 인간의 추악성을 소설을 통해 다루어왔던 것이다. 희생양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속죄양으로 희생되며 이로써 신성한 존재로 거듭난다. 지라르는 ‘하느님의 어린 양(agneau de Dieu)’이라는 표현을 들며 이 말이 “희생양(bouc émissaire)이라는 말과 흡사하면서도 숫염소(bouc)라는 말이 갖고 있는 혐오스럽고 냄새나는 내포 의미를 어린 양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내포 의미로 바꿈으로써, 이 희생물이 무죄라는 것을, 그래서 그를 벌주는 것은 부당하며 그를 미워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을 더 잘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

본고는 ‘희생양’이라는 문제적 인물 유형의 양상과 작가의 현실 인식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서정인의 문학 세계를 정초하는 핵심적 세계관을 밝혀보고자 한다. “희생양의 텍스트에 대해 논할 때는 언제나 그것이 텍스트의 ‘희생양(감추어진 구조 원칙)인지 아니면 텍스트 ‘속’의 희생양(잘 드러나 보이는 희생양)인지를 우선 따져보아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박해의 기록”으로 “희생양 효과에 의해 지배받고 있지만 희생양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고 “후자의 텍스트는 희생양 효과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에 지배받고 있지는 않”으며, “박해의 진실을 폭로하고 있는 텍스트”이다.⁵⁾ 서정인의 소설은 사회적 약자의 눈과 입을 통해 텍스트 ‘속’의 ‘희생양’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그는 약한 자에게 침묵과 죽음만을 강요하는 사회의 부조리함과 파렴치함을 인물의 말을 통해 폭로하며,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방식이 얼마나 작위적이고 폭력적인지 작품을 통해

4) René Girard,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2016, 192-193면.

5) 위의 책, 196면.

일깨우려 한다. 또한 그 누구도 희생양으로 지목될 수 있는 시대 상황에서 대화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대주의의 절실함을 설파하고 있기도 하다.

2. ‘희생양’에 내재한 인간의 배타주의

서정인의 소설에는 ‘희생염소’, ‘속죄염소’와 같은 단어들 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때의 ‘희생양’은 무고함에도 죄를 전가 받아 공동체의 외부로 쫓겨난다.⁶⁾ 서정인은 인류의 역사를 희생양의 역사로 보고 있으며, 대표적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를 내세우고 있다.

“희생염소라는 것이 있어요. 속죄염소라고도 하지요. 유태인들이 종족의 죄를 뒤집어써워서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내쫓았어요. 소수민족이나 소수파는 아주 좋은 염소들이지요. 짐승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여야지요. 다행히 어딜 가나 소수는 있어요. 없으면 만들지요. 사막이나 무인도에 조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하나씩 동료를 잡아 먹다가 나중에 단둘이 남으면 서로 눈치를 본대요. 마지막 자신 혼자 남을 때까지 속죄염소는 항상 있어요. 이차세계전쟁 때 독일의 유태인들이나 일본 관동지진 때 동경의 조선인들은 고전적인 염소들이지요. 미국의 흑인들이나 구라파의 아·아출신 유색인종들도 그런 몫을 톡톡히 해요. 나라 안에 편리한 이민족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자체내에서 만들어내요. 남북으로 동서로 갈라져서. 남이면 남, 서면 서 또 어떻게 하지요? 또 만들어내요. 남쪽에도 동서남북이 있고, 서쪽에도 동서

6) 희생양(scapegoat)의 기원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매년 속죄일(Day of Atonement)에 염소에 손을 얹어 죄를 전가한 뒤 이 염소를 황야로 내쫓은 데서 비롯한다.

남북이 있어요. 동서남북이야 어딜 가나 다 있지요. 사방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동서남북이 나왔지요? 사형수. 그렇지요. 사형수. 이거 참 좋은 염습니다. 사형수는 그가 지은 죄를 예방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복수가 되지도 않고, 사회 정의의 실현은 더더욱 아니지요. 사형수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우리들은 범죄가 근절되었거나 예방되어서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형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요. 우리들하고 사형수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같은 사람인데요, 뭘. 사형수들이 고맙게도 우리들의 죄목들까지 푹푹 짊어지고 목갱기 공장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들은 선하고 성스러워요. 우리들의 죄까지 그들이 다 형장으로 가져갔으니까요. 그들은 천하에 망종, 인면수심, 짐승 같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들의 죄까지 다 뒤집어썼으니까요.”

“누구하고 똑같네요.”

“누구하고 똑같지요. 누구도 속죄염소였어요. 누구는 자기 자신의 죄가 전혀 아니었지요. 순전히 남들의 죄였어요. 우리들의 죄였지요.”⁷⁾

『봄꽃 가을열매』의 황하청 교수는 속죄염소의 유래부터 이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의 유대인들, 관동대지진 때의 동경의 조선인들, 이민족, 남북 전쟁 등을 기술하고, 작금의 사형수까지 희생양의 역사를 훑으며 내려온다. 그는 타인을 차별하고 죄를 떠넘기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음을 사건의 나열로 논거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일들은 인간의 무지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대에는 사법 절차라는 체계화된 방식을 통해 사형수에게 희생양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을 그는 꼬집고 있다.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가 근절되는 것도,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7) 서정인, 『봄꽃 가을열매』, 현대소설사, 1991, 223-224면, 진한 글자와 밑줄 인용자, 이하 같음.

아니지만 우리들은 사형수가 죽기를 바라는데, 사형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황하청 은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가장 편한 방법이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일이라 말한다. 희생양의 역사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회피와 무책임을 그는 읽어내고 있다.

희생양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죽음으로 그는 “누구”의 죽음, 즉, 예수의 죽음을 든다. 기독교에서 예수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닌 “남들의 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죽었고 이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예수는 이방인이자 소수파로 희생양의 징후를 많이 지니고 있었으며,⁸⁾ 그의 십자가형은 희생양의 무고함과 군중의 만장일치적 폭력을 계시에 의해 보여준 인류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예수의 자기희생적 죽음은 인간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운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서정인은 예수가 태어나고 죽었음에도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이는 인간의 심층에 자리하고 있는 본성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지나친 얘기가 아니죠. 어떤 전쟁은 선이고 어떤 전쟁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분쟁의 씨앗이죠. 하물며 같은 전쟁의 어느 쪽은 선이라고 하고, 어느 쪽은 악이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은 선이지. 더 큰 악을 막는 작은 악은 선일 테니까.”

8) 크리스트는 아버지가 없으며 단성생식으로 태어났다. 그는 삼십 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가 세상에서 고초를 겪었던 것은 그에게 아버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서였다. 단지 멀리 있었다. 그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진리를 외쳤다. 그가 너무 높았거나, 사람들이 너무 낮았다. 그의 업적은 천천히 나타났다. 이 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다 드러나지 않았다.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스러움은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서정인, 『목마』, 『빗점』, 양영, 2011, 102-103면)

“그건 공리주의예요. 아마 산술을 잘 하는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기독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흔 아홉 마리 양과 한 마리의 양 이야기가 있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기독교도들의 것은 아니지 않아? 더구나 삼국시대는 말야.”

“물론이죠. 저도 기독교가 아니예요. 불교도예요. 불교의 자비는 분명히 살생을 금하고 있죠.”

“그렇지만 말야. 기독교에도 십자군이 있고, 불교에도 호국 불교라는 게 있고 승병이라는 게 있었어. 종교의 이상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되지.”

“맞아요. 신자들의 현실이 그들의 종교의 이상일 수는 없어요. 베들레헴 예수 탄생의 성지에 접근하는 길들이 교파별로 여럿이래요. 예배 시각도 각각 다르구요. 서로 만나면 싸우기 때문이래요.”

“그야 절간에서 살인도 나는데.”

“바로 그거예요. 사제들이 서로 싸우고, 목사들이 서로 싸우고, 승려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증걸 거예요. 그들의 태어남부터가 필요에서였겠지요. 그들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이 되어 있었다라면, 그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 필요는 오늘날 조금도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어난 것 같아요.”⁹⁾

『철쭉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聖地)인 예루살렘을 사생결단의 싸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장소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 종교 모두 평화와 화해를 지향하는데도 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종교의 이상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현실” 사이의 혼동 때문이라 주장한다. 현실이 절대적인 것으로 변질되면 ‘나’의 현실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현실은 얼마든지 배제되고 경시될 수 있다. 이상과 현실의 혼동이 배타적 태도를 양산해내는 것이다. 이는 타종교 간에도 적용되며 ‘나’의 입장이 옳다는 생각에 매몰되면 상대의 입장

9) 서정인, 『철쭉제』, 『철쭉제』, 민음사, 1986, 188-189면

은 옳지 않은 것이 되고, 거짓이 되며, 결국 '악'으로 규정된다. '악'은 없어져야 마땅하므로 '나'가 하는 공격과 배척은 선하고 정당한 것이 된다. 서정인은 모든 다툼의 이면에 인간의 배타적 생각과 태도가 내재해 있음을 지적한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시대임에도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까닭도 인간의 타인에 대한 편협한 태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배타적 생각과 입장을 지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차이'이다. "희생위기는 차이의 위기(*crise des différences*), 다시 말해서 총체적인 문화 질서의 위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사실 문화 질서는 차이들의 조직된 제도에 다름 아니다. 모든 개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자신의 자리를 잡는 것은, 자기동일성(*identité*)을 부여해 주는 바로 이 차별적 편차 때문에 가능"하다.¹⁰⁾ 이로 인해 자신이 속한 체계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배척과 적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차별화의 위기가 희생양을 낳는 것이다.¹¹⁾

총든 마귀가 다 있나요? 총을 들면 다 마귀가요? 총든 마귀

10) René Girard,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17, 76-77면.

11) 지라르의 무차별화의 위기는 그들 체제와 차이가 나서가 아니라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신의 체제가 가진 고유성과 차별성이 와해될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차이를 무화시키는 무차별화의 징후를 지니고 있는 희생양을 박해하는 것이다.

"희생양 선택의 징후가 의미하는 것은 그 체제 내부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체제 밖의 차이이다. 희생양 징후란 그 체제 안에서 보자면 자기 체제가 갖고 있는 차이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 달리 말해서 그 결과로 자신의 체제가 모든 것과 다르지 않게 됨으로써 자신이 체제로서 존재할 수 없어질지도 모를 그런 가능성이다. (중략) 차이들은 추락하고 충돌하고 뒤섞여서 결국에 가서는 와해될 위협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그 체제의 진실과 상대성, 그 빈약성과 소멸을 암시하고 있는 체제 밖의 차이는 당연히 그 체제에 위협을 주게 된다." (René Girard, 『희생양』, 앞의 책, 39면)

뿐인가? 칼든 마귀도 있어. 그 여자, 누구라고 했더라, 단신 적진 속에 들어가서 적장 목을 덜렁 베 가지고 들고 나온 여자 말이야. 그 여자도 마귀야. 마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파부가 요염하게 화장을 하고 적 군사들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그 우두머리의 목을 쳤겠어? 그게 가경이거든. 가짜 경전 말이야. 침략자를 물리친 여자가 어찌 마귀이며, 여자라고 의로운 일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대요? 서방 잡아먹은 것부터가 마귀야. 그 마귀를 안 쫓았더니, 예쁜 얼굴에 쇠인 마귀가 또 남자를 잡아먹었어. 잡귀 이야기가 위경이 아니면 무엇이 위경이겠어? 위조한 경전 말이야. 아니요. 그것이 어째서 위경이대요? 그것은 위경이 아니라 외경이요. 그 이야기 안 읽어봤지요, 벽에 도배하나라고? 가짜를 왜 읽어, 진짜도 다 못 읽는데? 그것이 진짜요. 당신은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소. 지리산 야음 이야기, 월남 비엠통 이야기, 이우뎃 성경 이야기, 다 꺼꼴로 들었오. 월남은 멀어서 꺼꼴로 들었고, 이우뎃은 오래되어서 꺼꼴로 들었고, 야음은 어두워서 꺼꼴로 들었오. 그 여자의 이야기는 외경전이요. 외경 말이요. 꺼꼴로라고? 원래 이놈의 세상이 꺼꼴로 된 것 아니야?¹²⁾

『달궁』의 윤점례는 이우뎃 이야기를 “가경”, “위경”이라고 칭한다. 인실은 이우뎃의 성경 이야기는 “외경”이며 읽어보지 않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라 답한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정경의 수용과 인정에 관련한 것으로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천주교는 『유뎃전』을 포함한 외경 7권을 제2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의 수용범위가 다르다. 또한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만을 인정한다. 성경의 수용범위와 인정 여부의 차이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에 윤점례는 진짜(정경)가 아

12) 서정인, 『달궁 둘』, 민음사, 1988, 24-25면

닌 것은 모두 가짜(가경)이며 가짜는 입을 가치가 없다(위경)는 식의 논리를 펼친다. 이 주장은 자신의 종교 체계의 특이성을 무화할 수 있는 성경 존재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하지만 서정인은 '나의 (문화)체계가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상대를 가짜, 거짓으로 몰고 가는 논리와 태도가 이성적인지 묻고 있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았느냐는 것이다. 서정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타인의 자리를 배제하는 것이 결국은 이기심의 충족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만을 지나치게 위하는 일이 타인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정인은 『용병대장』과 『말뚝』에 지롤라모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 1452~1498)를 희생양으로 등장시켜 형상화한다. 사보나롤라는 1494년 메디치가가 추방당한 피렌체에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그가 예언자로 주목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프랑스의 왕 샤를 8세의 이탈리아 침공이었다. 그는 프랑스 왕의 침입이 자신이 2년 전 받은 계시가 실현된 것이라 주장했고, 1494년 11월 20일 샤를 8세가 추방당한 피에로 데 메디치(Piero de Medici)를 복귀시키지 않으면 도시를 약탈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입성한 뒤 피해를 입히지 않고 11월 28일 나폴리를 향해 남하했는데 이를 두고 사보나롤라는 신의 보호 아래 피렌체가 시련을 통과했다고 말한다. 피렌체인들은 사보나롤라가 프랑스 왕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재촉한 결과라 생각했고, 도시가 약탈당하지 않은 것을 기적으로 여겼다.¹³⁾

사보나롤라가 피렌체인들에게 요구한 덕목은 '소박함'이었고, 이와 더불어 성직매매를 비판하며 교회의 도덕성 회복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교황의 계속되는 위협과 프랑스 군의 패퇴로 권위를 잃기

13) 변선경, 「사보나롤라와 덕의 공화국」, 『서양사론』 제125호, 한국서양사학회, 2015.06, 213면 참조.

시작하였고 사치품을 불태우는 ‘허영의 모닥불’을 시행”하였지만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1498년 4월 7일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사보나롤라 측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렌체인들이 격분하여 다음날 산 마르코 성당을 습격하고 유혈사태를 벌인다. 4월 9일 정부위원회는 그를 소환해 고문하고 5월 22일 이단죄를 선고하고 처형한다.¹⁴⁾

사보나롤라가 예언자로서 주목을 받고 이단으로 처형되는 일련의 과정들에는 희생양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사보나롤라가 속한 읍도파(泣禱派: 통곡파, Piagnoni)는 가톨릭의 소수파라 할 수 있으며 그의 설교는 다수인들에게 불만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¹⁵⁾

번영과 사치와 향락과 퇴폐를 즐겼던 피렌체 시민들에게는, 바로 그래서 사보나롤라의 열변이 처음에는 참신했지만, 오래 갈 수 없었다. 오래되면 새로움이 아니었다. 군중들의 감각에는 정의보다 쾌락이 더 좋았다. 남들의 악덕이 불탈 때는 좋았지만, 남들이 곧 그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¹⁶⁾

피렌체 시민들은 사보나롤라의 행보가 처음에는 신선하다 느꼈지만 이후 그가 행하는 단죄들이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깨닫는다. 사보나롤라는 피렌체 시민들의 생활과 문화에 깃든 사치스러움을 비난했던 것이다. 사보나롤라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사회 다수(피렌체인들)로부터 희생양으로 점 찍혔다는 사실을

14) 위의 책, 224-227면 참조.

15) 사회의 다수 계층들은 박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집단의 욕구 불만과 불안을 희생양에게 쏟음으로써 대리 만족을 하게 된다. 이때 이 희생양들은 집단 전체와 잘 통합되지 않는 소수파이기 때문에 집단은 이들을 박해하는 데 쉽게 단결될 수 있는 것이다. (René Girard, 『희생양』, 앞의 책, 70면)

16) 서정인, 『용병대장』, 문학과지성사, 2000, 279면.

드러낸다. 불의 심판은 시죄법(試罪法)의 한 방식으로 불에 태웠을 때 몸이 타지 않음으로 신의 은총을 증명하는 무죄입증방식이다. 사실상 유죄가 결정되어 있는 셈이다. 이후 그는 이단이라는 죄명으로 말뚝형을 받게 되는데 『말뚝』은 그의 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단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 가지다. 받아들여진 의견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다. 사람이란 얼마든지 그릇된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고치면 된다. 교회는 회개한 이단들에게 관대하다. 일곱 번의 일흔 배도 용서한다.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교회가 결정한다. 교회의 마지막 권위는 교황이다. 너희들은 교황 성하의 명령을 여러 번 어겼다. (중략) 편지를 여러 번 받고 그것들을 무시했고, 마침내 파문을 받고도 누우치지 않았다. 고치지 않는 이단에 대해서 교회는 엄격하다. 그것은 오염과 모방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 재판정은 교황 성하의 모든 권한과 임무를 위임받아서 지롤라모 사보나톨라를 용서할 수 없는 이단으로 확정하고 말뚝형을 선고한다. 너가 너를 버렸다. 나머지 두 사람들도 같다.” 총회장이 말을 마쳤다. 그가 죄인들을 굽어보았다. (중략)

“말이 좀 길었소?” 회장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죄가 많아서 길어졌겠지요.”

“아니오. 만드느라고요.”¹⁷⁾

“박해자들은 심정적으로 희생양을 분명 미리 심판”하고 있으며 “희생양은 자신을 변론할 수도 없으며 재판은 이미 결말이 나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재판은 정의롭지는 않지만 “재판의 속성은 고백하고 있는 재판이다.”¹⁸⁾ 희생양의 희생으로 사회가 안정을 찾는데 성공한다면 희생양은 영웅이

17) 서정인, 『말뚝』, 작가정신, 2000, 15-17면.

18) René Girard, 『희생양』, 앞의 책, 64면.

되고 성스러워진다. 화형 당함으로 예언가 사보나롤라는 숭고해진다.¹⁹⁾ 하지만 희생양 메커니즘의 본질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이다. 서정인은 사보나롤라를 통해 사랑과 평화를 설파하는 종교가 흥성하던 시대에도 희생양은 만들어졌으며 희생양 메커니즘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적 인물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사회의 폭력성이 보편적임을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희생양 메커니즘’에 저항하는 상대주의적 세계관

희생양은 종교적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핍박받지 않는다. 서정인은 희생양이 과거에도 있었고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며 우리 근처에도 있고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음을 반복 서술하고 있다. 종교의 차이, 민족의 차이, 지역의 차이, 성씨와 혈연의 차이 등 ‘나’와 ‘너’의 차이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지어낼 수도 있다. 희생염소(희생양)는 “분풀이” 대상이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임의로 지정된다. 어떻게든 화풀이 대상을 만들어내려는 인간 심리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것이다.²⁰⁾ 한마디로 희생양은 남 탓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할 수

19) 쫓겨난 마르케리타는 아까 바르톨로메오가 기뻐던 벽 근처에 것처럼 기대서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붉은 모자도 싫고 피의 모자가 좋다더니, 불의 모자를 쓰는구나, 뜨거워서 어쩔거냐.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검은 구름은 간데 없고, 흰 구름이 북쪽으로 흘러갔다. 가시관을 썼을까. 가시관이 지켜줄까. 가시관이 지켜볼까. 가시관은 안 탈까. 그녀는 불기운을 타고 올라간 수사의 몸과 혼이 구름을 타고 고향으로 간다고 생각했다. (서정인, 『말뚝』, 앞의 책, 95면)

20)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속죄염소였다. 물건 자체는 별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없어진 것도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다. 뿔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데, 아무도 잘못된 사람이 없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중략) 문제는 분풀이였다. 어디다가 화를 풀 것인가. 희생염소는 언제나 있었다. 없으면 만들었다.

있다. 남 탓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희생양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정인은 전쟁 중의 작은 마을에서조차 외지인과 타성바지를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외지 사람들이나 타성바지들이 고생이었다. 일가라도 밖에서 들어오면 도로목이나? 무슨 소리. 일가는 어디 살아도 일가였다. 왜 도토리묵이나? 타성씨들은 일 년 아니라 십 년을 살아도 개꼬리였다. 타성들은 외지에서 오나 동네 안에서 오나 천덕꾸러기, 개밥에 도토리, 찬밥 신세냐? 일가는 오래 사나 처음 사나 한 식구냐? 그래 그렇단 말이여. 어디 살면 핏줄에 물 섞이나? (중략)

“밀고, 진장, 고소, 고밭이 아마 동부육군에서 가장 많네. 말이 없다고 속조차 없을손가.”

“깎지에서 굴러온 사람들이 없으면 누구허고 싸우요?”

“동네에 타성바지 아니면 사람이 없을라고?”²¹⁾

이처럼 희생양은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생겨난다. 이 말은 희생양이 악의적으로 조작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서정인은 『무자년의 가을 사흘』(여순 사건과 한국 전쟁)과 『해바라기』, 『국경 수비대』(5.18 민주화 운동)를 통해 민간인들의 존엄이 어떻게 짓밟혀왔는지 상세히 그려낸 바 있다. 권력을 잡은 이들이 국가 안보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혼란의 책임을 일부 국민들에게 전가해온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경수

희랍의 트로이 사람, 로마의 기독교도, 기독교 국가들의 이교도, 특히 회교도, 미국의 흑인, 에스빠냐 사람, 아세아 사람, 영국의 인도 사람, 불란서의 알제리아 사람, 독일의 유대인, 일본의 조선인, 조선의 뒷놈, 왜놈, 양놈, 전라도의 경상도 사람, 전북의 전남 사람, 전주의 숨리 사람…… 봉동의 용진 사람…… 한 마을의 옆마을 사람, 한 집의 옆집 사람, 한 사람의 옆사람……. (서정인, 『봉어』, 『봉어』, 세계사, 1995, 217면)

21) 서정인, 『무자년의 가을 사흘』,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 작가정신, 1999, 107-108면)

비대』에는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한 지역의 시민들을 반란군, 폭도로 지목하여 학살하는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지휘 계통에 있는 몇몇의 군 장교의 계획에 따라 선량한 시민이 폭도로 날조되었던 것이다.²²⁾ 서정인은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을 예로 들어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전국에 시위가 번졌다. 사람은 경험을 배우지 못했다. 역사가 되풀이 되었다. 좋은 일은 다시 안 오고 궂은 일은 한 번에 안 그쳤다. 시위대 배후에 불순한 세력이 있었다. 언제나 그랬다. 사일구 의거가 그랬고, 얼마 전 부산과 마산의 봉기가 그랬다. 이번이 예외가 될쏘냐. 보안경비대가 시위군중 속에서 북괴의 지령을 받고 암약하던 남파간첩단과 그들에게 포섭된 각계 각층 인사들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무전기와 미화다발과 무기류들과 암호표들과 조직계보도표가 전시되었다. 현 운동화와 작업복바지와 고무배와 피우다 남은 담뱃갑도 여전했다. 바다로도 침투하고 육로로도 넘어오고 제삼국을 통해서 공중으로도 날아드는 모양이었다. 신문들이 신들이 나서 서로 다투어 크게 보도했다. 간첩들과 그 동조자들의 작고 흉악한 사진들과 나란히 보안경비대 공룡 장군의 사진이 담화문과 함께 커다랗게 났다.²³⁾

위 인용문에서 서정인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간첩들과 그 동조자들”로 기정사실화하는 정치 공작이 하루 이들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은 이승만

22) “무신 시작차이 말인가? 서울이 반란이라카는데 현지에서 아니라 카겠나? 현지는 아마 혼란뿐일 기다.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린지 알 수 없는 판에 서울이 반란이라 카면 반란인 줄 알고 폭도라 하면 폭돈 줄 알지 무신 잔소리가 있겠나? 실병 지휘는 현지 지휘관들이 하고, 사령관은 서울에서 방침만 확정하면 되는데, 원칙을 정하자면 현지의 혼란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서정인, 『국경수비대』, 『봉어』, 앞의 책, 35면)

23) 위의 책, 45면.

의 자유당 정권과 박정희,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군부의 독재와 부패에 반대해 일어났다. 하지만 해당 정권들은 반성과 책임을 지는 대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공산당, 빨갱이, 간첩, 폭도 등의 혐의를 씌워 적대하고 사살하였다. 특정인들의 정치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폭력적 성향의 집단적 전이(轉移)현상으로서, 공동체가 갈등으로 인하여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힘없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쏟아부어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²⁴⁾ 정권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희생양에게는 죄가 없을뿐더러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미약하다. 부패한 정권은 이를 잘 알고 불만과 불평을 자신들이 아닌 체제 외부를 향하도록 적극 유도했다.

“그 책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선량한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일부 불순한 사람들을 불법으로라도 슈아낸다던데요? 그러다 보면 더러 성한 일이 뽑히기도 하겠지요, 동해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명태만 건지겠어요?” (중략)

“할 수 없지요. 같이 간첩으로 몰아넣을 수밖에요. 그 사람 하나 원죄 안 씌우자고 다 잡은 간첩들을 놓쳐요? 당한 사람이야 억울하겠지만 이왕 나라를 위해서 버린 몸, 한번 더 버리라고지요. 죽을 병이 따로 없고 사형수가 따로 없어요.”²⁵⁾

『봄꽃 가을열매』의 영환 어머니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24) 이종원, 『희생양 메커니즘과 폭력의 윤리적 문제-르네 지라르의 모방이론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40,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5.11, 277면.

25) 서정인, 『봄꽃 가을열매』, 앞의 책, 222면.

어쩔 수 없다는 정권의 논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권은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의 존엄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로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민간인을 사찰하고 수사한다. 『해바라기』는 선량한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보호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어느 날 김갑동은 갑자기 끌려가 나주 경찰서를 습격한 폭도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된다. 소설의 서두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 보통의 시민이다. 하지만 수사관은 그의 무고함을 알아주기는커녕 “아직 살아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기라며 협박과 폭행을 동원해 죄를 자백 받으려 한다.

김갑동은 시위를 한 적이 없었다. 경찰서를 습격한 적은 더욱 없었고 무기를 탈취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는 바빴다. 그럴 틈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중략)

“바른대로 말해라. 매가 부족하나? 너 하나 처죽여봤자 흔적이 안 난다. 아직 살아 있는 것을 고맙다고 해라. 맞아죽는 것보다야 재판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설마 판사한테서 사형이야 떨어지겠냐? (하략)”²⁶⁾

김갑동은 이내 서약서를 쓰고 석방되는데 골병이 들었음에도 살아온 것 자체를 대견스럽게 여긴다.²⁷⁾ 그의 태도는 독재 하에서 비밀경찰에게 잡혀가는 일이 뜻하는 바를 알면 이해할 수 있다. 지방계엄사무소(1979.10.27.~1981.1.24)에 잡혀갔다는 것은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의미했다. 계엄사령부 내의 합동수사본부와 지방계엄사무소는 이후 신군부에 의해 국가안전기획부(1981.1.1)로 개칭되었지만 그간 중앙정보부(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 정보, 수사기관)가 수행했던 초헌법적 정치사찰과

26) 서정인, 『해바라기』, 『봉어』, 앞의 책, 11면.

27) 그나 그의 부인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대견했다. 골병이 든 사람은 할 일이 많았다. (위의 책, 28-29면)

인권 침해와 강압적 수사들을 일삼았다. 김갑동을 조사했던 수사관도 국가기관의 강압적 수사가 공공연한 비밀임을 실토하고 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 군사비밀의 정체를 스스로 까발리고 있는 것이다.

“니가 여그 있는 것은 군사비밀이다. 니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니를 아는 사람들은 니가 여기서 좃나게 얻어맞고 있는 것을 모르고, 니가 여기서 네 발로 뽀뽀 기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니가 누군지를 모른다. 니를 영창에 가두고 지키는 헌병들은 니가 폭도라는 것밖에 모른다. 비밀이 왜 있냐? 썰라고 있다. 세상에 비밀만큼 잘 알려지는 것이 없더라. 특히 군사기밀 말이다. 니가 여기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아, 안 죽었으면 잡혀 갔지. 비상계엄 밑에서 계엄 사무소 아니면 어디로 잡혀 갔겠냐? 영창 헌병들이 니가 누군지 모른다지만, 니가 광주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냐? 광주가 어디 서울만허냐? 몇백 만이 사냐? 총장로 동방극장 황금동 텍사스, 손바닥만헌 것, 뽀해야. 가들 외출 어디로 나가겠냐?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이급 비밀이다. 비밀이 많은 이유를 알겠지야? 언제 다 아냐?”²⁸⁾

서정인은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권력과 군대의 힘으로 짓밟고 뭉개버리는 사건들을 보면서 사회의 비정상성을 실감한다. 죄 없는 시민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게 만드는 일이 국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²⁹⁾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의 배제

28) 위의 책, 22면.

29) 그가 긴장한 피한들 셋에 붙잡혀서 충청도 피산으로 끌려간 것은 그 이튿날 저녁이었다. 그는 그때사 저녁 때 집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뿔이 희미하게 그의 머릿속에서 가닥을 잡는 것 같았다. 그는 스물네 시간이 유예되었다는 것을 몰랐고, 왜 유예되었는지는 더욱 몰랐다. (중략)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라진 지 이틀 뒤에 윤센도 자취를 감췄다는 것을 그가 안 것은 몇 달이 지난 뒤였다. 그때 그는 그의 잠적의 의미를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윤센이 누군지조차 가물가물할 정도

와 말살은 특권층의 권력욕과 사욕을 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치 박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공존하지 않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다. 어떤 의견이라도 절대적 옳음을 주장하는 순간 다른 의견들은 묵살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존재할 이유가 있으며 존중 받아야만 한다. 서정인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이상적 사회로 보았으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맞물려 있었다. 서정인의 다양성에 대한 추구는 '상대주의'로 이어지며 그의 문학 세계의 분류를 이룬다.

『봄꽃 가을열매』의 황하청 교수는 제자인 춘추의 무허가 판자촌에 대한 평가에 편견이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부잣집 딸인 춘추의 눈에 판자촌은 좋아야 동정이고 나쁘면 경멸이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촌은 동경의 대상이자 불결한 장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치와 억지를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치대로 해도 입장이 상반되면 같은 물건이 반대로 보인다. 이치를 조단조단 따져서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을 참작하면 사물의 모습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억지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 이치를 억지라고 해도 억지이지만, 억지를 이치라고 해도 억지이다. 억지는 종잡을 수가 없다. 같은 물건이 같아 보여도 믿을 수가 없고 달라 보이면 더 믿을 수가 없다. 얼마쯤 빼고 보태야 할지 가늠이 가지 않아서 물건의 모습을 전혀 짐작할 수가 없다. 우선 너의 눈이 이치인지 억지인지 가려내라. 억지

였다. 누군지 알았더라도 관심이 안 갔다. 그가 그와 저녁을 먹고 헤어져서 집에 갔던 날 밤 그를 소개하는 글을 그의 부인에게 썼던 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켰는지 그는 몰랐고, 그런 글을 쓴 것조차도 그의 기억에서 멀어져갔다. 그는 그의 이야기를 그의 뜻과는 달리 좋게 썼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서정인, 『잠적』,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 앞의 책, 159면)

이면 이치로 돌리도록 애를 써라. 그계 안되면 사물을 바라보려는 욕심을 버려라. 이치라면 조심스럽게 시각차이를 계산해라. 상대방의 억지에 말려들지 말고 그 억지 속에서 이치를 끌어내도록 애를 써라. 너가 이치이더라도 상대방이 억지이면 억지로 끝난다. 반대로 마찬가지이다. 너가 억지이면 상대방이 아무리 이치이더라도 소용없다. 그러기가 쉽다. 너의 눈이 억지이기 쉽겠다는 말이다. 너는 지금 남의 집을 들여다보고 있다. 집주인 눈이 억지겠냐? 주인이 자기 집 바라보는 눈이 엉터리겠냐? 너는 너네 집, 너네 동네 집을 엄두에 두고 남의 동네 집을 들여다보았다. 너의 머리 속은 그 집에 불리한 편견들로 가득찼다.³⁰⁾

황하청은 이치라도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나’의 견해가 이치라고 해서 상대의 다른 견해가 억지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상반되는 의견일지라도 ‘나’와 상대방 모두 이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식의 상대성을 말하는 것으로 ‘나’의 인식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나’의 견해가 억지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에게 자기 반성적 태도란 삶의 매우 중요한 자제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억지를 말할 경우, 대화가 어렵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그에게는 다양한 이치가 있을 수 있고, 시시비비(是是非非)도 엄연히 존재한다. 시시비비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이치로 보편적인 진리에 가까우며 타인과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상대주의는 “주관적 인식의 단편성에 기인”하여 “보편적 진리로서 공인될 수 없는 불가지론으로 귀결된다.”³¹⁾ 일반적으로 상대주의가 관용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단

30) 서정인, 『봄꽃 가을열매』, 앞의 책, 64-65면.

31) 이진경, 『장자의 인식론에서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문제』, 『도교문화연구』34, 한국도교문화학회, 2011.4, 146면.

지 불간섭과 배타적 방관에 그친다면 주체 상호간에 소통과 조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소통과 조화는 자신과 모순될 수도 있는 상대방의 인식과 주장의 진리성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³²⁾ 서정인 소설의 상대주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상대주의와 다르다. 서로 반대되는 이치를 주장해도 소통의 관계는 얼마든지 맺어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정인 소설의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주관성을 인정하면서 자신과 모순될 수 있는 인식과 주장마저도 이해하려 한다.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 방관자적 태도에서 비껴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서정인 소설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서정인 소설의 상대주의는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자의 ‘통일적 상대주의’와 흡사하다. 장자의 ‘통일적 상대주의’는 “현상적으로는 상대적 차이와 다름을 보이지만, 그 가운데 보편적 기준과 객관적 요소가 있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용적이고 통일적인 인식론이다. 이 인식의 상대성이 인정될 때 개별자의 주체성과 특수성이 보장되고, 상대적 인식들이 보편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상호 소통과 조화를 실현하는 관건이 된다.”³³⁾ 서정인은 통일적 상대주의의 세계에서 억지는 존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상대방의 인식과 진리성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세계에서 타인에 대한 경시와 배제는 있을 수 없다. 그는 상대주의가 더 이상의 희생양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32) 위의 책, 146면.

33) 위의 책, 161면.

4. '희생양' 없는 사회를 위하여

서정인은 소외되고 배제된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소설을 통해 이야기해왔다. 그는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을 작가의 중요한 소임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주목하게 된 것이 '희생양'이었다. 그는 '희생양'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다수에 의해 낙인찍히고 그들의 죄를 떠맡음으로써 희생당하는 모습들을 보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지니게 된다. 그는 소설을 통해 인간의 역사가 희생양의 피로 얼룩져 있음을 보여주고 인간의 배타적 태도와 사고들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그는 '나'의 사고와 입장에 너무 치우치면 어느새 상대의 사고와 입장은 틀린 것이 되고 악으로 규정되는데 이 안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배타주의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결국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희생양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인류사적 사건들과 종교분쟁, 사보나롤라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인간의 보편적 양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는 무고한 시민이 희생양으로 조작되었던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반추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근대는 한국전쟁과 독재, 쿠데타 등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많은 이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어내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서정인은 국가가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힘없는 시민들을 유린하고 사살하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벌였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음을 소설에 묘사하고 있다. 이런 사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폭력적이며, 인간의 존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어떤 명목으로도 희생양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서정인은

‘상대주의’를 해답으로 제시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었다. 그에게 상대주의란 ‘나’와 반대되는 의견조차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정인 소설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은 이 점에서 인식적 상대주의보다는 장자의 ‘통일적 상대주의’에 가깝다. 서정인은 타인의 다름을 포용하고 존중하면 분쟁과 싸움을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물론 이러한 길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의 민주 사회를 향한 갈망이 이를 지향하도록 이끌어왔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서정인, 『철쭉계』, 민음사, 1986.
 _____, 『봄꽃 가을열매』, 현대소설사, 1991.
 _____, 『달궁 둘』, 민음사, 1988.
 _____, 『붕어』, 세계사, 1995.
 _____,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 작가정신, 1999.
 _____, 『용병대장』, 문학과지성사, 2000.
 _____, 『말뚝』, 작가정신, 2000.
 _____, 『빗점』, 양영, 2011.

2. 논문

- 김경수, 「<달궁>의 언어에 이르는 길」, 『작가세계』 제21호, 작가세계, 1994.5, 18-35면.
 김주현, 「서정인 문체의 양면성」, 『어문론집』 제32집, 중앙어문학회, 2006.8, 271-297면.
 김재영, 「서정인 소설 『달궁』의 서술특성과 ‘현실성」, 『상허학보』 제20집, 상허학회, 2007, 415-442면.
 변선경, 「사보나톨라와 덕의 공화국」, 『서양사론』 제125호, 한국서양사학회, 2015.06, 206-234면.
 오양진, 「부조리의 현실과 수수께끼의 서사-서정인의 「뒷개」에 나타난 서술과 독자에 대하여」, 『국제어문』 제56집, 국제어문학회, 2012.12, 293-320면.
 이종원, 「희생양 메커니즘과 폭력의 윤리적 문제-르네 지라르의 모방이론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40,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5.11, 273-301면.
 이진경, 「장자의 인식론에서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문제」, 『도교문화연구』 34, 한국도교문화학회, 2011.4, 143-178면.
 주영중, 「모호한 언어와 불확실성의 세계-서정인의 「미로」에 나타난 언어관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42집, 중앙어문학회, 2009.11, 437-459면.

3. 단행본

Girard, René,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2016.

_____,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17.



<Abstract>

The scapegoat and the relativistic worldview In Seo, Jeong-in's novels

Park, Hee-Hyun

In Seo, Jeong-in's novel, the scapegoat is mentioned and described. Seo, Jeon-in argues that the history of mankind is the history of the scapegoat, talking about the death of Jesus as a humanistic event that showed the innocence of scapegoat and the unanimous violence of crowd by revelation. As a reason for this, he holds that the exclusive attitudes of human beings are inherent behind all the disputes. He points out that the excessive faith in his right is to make others as enemies and evils, and therefore the exclusive attitude has produced many scapegoats. He also shows Girolamo Savonarola in his novels 'Yong Byeong Dae Jang' and 'Malttug' to illustrate the epitome of the religious sacrifice. However, the essence of the scapegoat mechanism is the majority's violence toward the minority. Seo, Jeong-in indicates that the scapegoat was created even in the peak period of religion through the use of Girolamo Savonarola, and the mechanism is still valid.

Seo, Jeong-in clearly states that the scapegoat is an arbitrarily designated person to take it out on and shift blame. It is based on the human psychology that wants to create person to take it out on anyhow. He recognizes that Korean society has been busy to spend



time to create the scapegoat. He deplores that the scapegoat mechanism has been used as a way to solidify the political power of certain people, including 4.19 revolution,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Busan and Masan, and the Gwangju democracy movement on May 18, and these have been repeated. The scapegoat created by the corrupt regime has no sin and has little power to protect itself. The corrupt regime knew it well and actively induced their complaints toward the outside of the system. Societies that do not respect various opinions and ideas are oppressive and violent. Seo, Jeong-in regards the society in which various voices coexist as an ideal society, which ultimately leads to social desire for democracy. His pursuit of diversity is associated with relativism and forms the mainstreams of his literary world.

Key words: Seo, Jeong-in, Scapegoat, Victim mechanism, Exclusivism, Relativism, Diversity, Democracy

투 고 일 : 2019년 4월 30일 심 사 일 : 2019년 5월 20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9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19년 6월 26일